**ONE ASIA, STRONG ASIA**

경제학과 201321924 주성훈

**수강 계기**

나는 일본지역연구를 복수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18년 2학기 수강신청을 하기 전 국제학부 수업 중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여러 수업들이 있었지만 그 중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수업이 눈에 띄었고 수강신청을 했다. 왜냐하면 평소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문화, 정치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기 말에 의하면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통해 나의 관심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

개강 후 아시아 공동체론 첫 수업을 갔다. 첫 수업을 가보니 수강인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강의였다. 나와 관심분야가 비슷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박성빈 교수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내용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다. 교수님은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이 윤강 형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각기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어보고 각 교수님들마다 아시아 공동체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수업을 들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학기 말에 수업을 다 들어보고 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수업을 들을 때 박성빈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아시아 공동체의 당위성,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들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수업**

가장 인상 있었던 수업은 이왕휘 교수님의 <아시아개념의 범위와 역사> 강의였다. 이 강의를 통해 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게 되었다. 교수님의 강의에 따르면 아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해가 뜨는 곳이고 고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을 지칭했다. 오히려 유로파 즉, 현재 유럽은 문명이 아닌 변두리 지역을 칭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 이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서구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시대가 되었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열강국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아시아라는 말 저의에 미개하고 저열한 지역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현재 일본, 중국이 탈 아시아를 외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라는 단어의 부정적 프레임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세계 경제 중심지는 잠시 몇 년간 서양이었으나 역사적으로 더 오랜 기간 아시아였고 현재도 중국, 인도의 발전으로 아시아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유럽을 열망하고 유럽은 세련되어 보이고 한 것이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잔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아시아는 더 오랜 시간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뭉쳐서 다시 세계 경제 중심지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

이왕휘 교수님 강의 외에도 한일 금융협력, 근대산업유산, 중국 천지회, 중일관계 컨퍼런스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등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주로 한 중 일 3국간의 관계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수업이었다. 나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아시아 공동체의 당위성은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득이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 중 일 3국이 역사적으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야할 조건이 많고 까다롭다는 것을 더 크게 느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각 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의 정보 등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의 관계, 아시아 각 국가 간의 관계 등 아시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전보다 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바라볼 때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원아시아재단과 박성빈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